

〈강남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 탄소중립이란?

환경보호를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4. 슬로우 패션

한동안 최신 유행에 맞춰 저가의 옷들을 짧은 주기로 대량생산하고 소비하는 패스트 패션이 유행이었습니다. 빠르게 입고 버리는 만큼 의류 쓰레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낮은 품질의 원단이라 재 활용하기도 어려우며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유행 탈타고 오래가는 옷을 입자는 슬로우 패션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었습니다.

▶ 이번 주 탄소중립 실천

“늘 한결같은 모습, 유행타지 않는 옷 구매하기”

강남교회 사회봉사위원회 창조질서보전부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1 부	오전 7:00	본 당	영 아 부	오전 11:00	사 랑 홀
주 일 2 부	오전 9:00	본 당	유 치 부	오전 11:00	희 락 홀
주 일 3 부	오전 11:00	본 당	유 년 부	오전 11:00	화 평 홀
주 일 비 전	오전 2:30	본 당	초 등 부	오전 11:00	자 비 홀
주 일 오후	오전 2:00	비 전 홀	중 등 부	오전 10:40	비 전 홀
새 벽	월~토 오전 5:00	비 전 홀	고 등 부	오전 10:40	별 관
수 요	오 후 7:30	비 전 홀	K S S	오전 9:00	충 성 홀
금요치유기도회	오 후 8:00	본 당	어 와 나	오 후 1:00	별 관

8월 봉사위원

(1부: 6시10분, 2부: 8시15분, 3부: 10시15분, 1층 전도부실)

안 내	1부	서동훈	봉 헌	1부	서동훈
	2부	이관재 김종현 전미숙 김남희 이영희 최경자		2부	김만진
	3부	이재훈 장지웅 서경일 황동현 이상호 남태우 김금옥 박지애 김지은 오정숙 김외숙 임철규 전희주 박미귀 정현주 김성희 김명석 김병현 김유진 이현분 정지연		3부	김용희

이번주 봉사

다음주 봉사

■ 당번 장로 : 이무일

■ 당번 안수집사, 권사

서동훈 안은상 최상훈 김성희 최정숙 박국희 박양희 엄항미 신효미 김혜자 윤경옥 이상금 조순희 지성임 이상영 이상현 김남일 김동훈 김길자 박선미 한해옥 하은주 박혜진

■ 당번 장로 : 전영진

■ 당번 안수집사, 권사

이관재 이종국 김소균 전영민 황화순 임정희 전미숙 권용례 김묘순 김민욱 양선옥 박현옥 김외숙 이형순 박일옥 김재운 신정철 전경수 김용희 최진용 오정숙 송인순 김민예 정성희 엄미선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백용석

부 목 사 김복희 백선주 김완수
백진우 전동균

전 도 사 명종임

교육전도사 김태영 이정윤 박 현
이동환 김정현 김선희

협동목사 조인영 오주연

협동준목 이주연

은퇴목사 민부기 허 식

선 교 사 구근호(필리핀)
조OO(중동)

시무장로 전영진 신병인 노상범
황봉규 윤봉수 차완규
이무일

원로장로 최남홍 이인식 최선웅
유병모 김용선 강기탁
이용덕 이영우 장옥진
한금행 이호성 박치순
유성열

협동장로 김영진 강용옥 김원기
김효윤 나도간

은퇴장로 배종기

찬양지휘 이해정 박정현 장설아
오 르 간 정은하
피 아 노 최지은 서선옥 이병규
이화진

오시는 길



화곡역 4번출구에서 1번 마을버스 타시고 백연공원 앞에서 내리시면 전방 50m지점에 **강남교회**가 있습니다. 강서 11버스 등촌역 방향 승차 (빨간 표지판)

■ 버스노선 안내 : 강서구청
604, 606, 650, 673, 5712, 6514, 6647, 70, 70-2, 70-3

2021

생명의 길이 열린 교회

(사도행전 2:28)

2021년 8월 22일 | 제52권 34호

주일에배 성령강림후 열세째주일

예 배	1부 백선주 목사 오전 7:00	2부 김복희 목사 오전 9:00	3부 전동균 목사 오전 11:00
목 상	오르간		
※ 입 레 송	주님을 찬양하라 (두번째는 다같이)		
※ 회개기도	다같이		
※ 용서의 선언	담임목사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교 독	3번		
찬 송	20장		
기 도	인도자	신병인 장로	
※ 봉 헌	다같이		
※ 평화의 인사	다같이		
알림과 사귀	인도자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9		
찬 양	이예진	정규영	이예진
설 교	선한 자의 낙심		백용석 목사
※ 찬 송	508장		
※ 축 도	담임목사		

(※표는 일어서서)

다음주일 기도-1부: 인도자, 2부·3부: 노상범 / 1부 찬양: 김보현

주일비전예배 오후 2:00

경배와 찬양
기도/ 이ური 청년
찬양/ 마하나임
성경/ 창세기 39:1~6
말씀/ 나는 형통한 자입니까?
/ 백진우 목사

다음주 기도/ 말씀사경회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경배와 찬양

가정예배
God's Table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기도/ 인도자
성경/ 로마서 15:22~29
말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 백선주 목사
찬송/ 207장, 449장

금요치유기도회 오후 8:00

경배와 찬양
성경/ 여호수아 14장
말씀/ 갈렘
/ 백용석 목사

생활나눔 - 기도(말씀이) - 성경(갈라디아서 6:9) - 말씀나눔/ 선한 자의 낙심 - 찬송(508장, 헌금)

우리는 지금 역사의 시계 바늘이 뒤로 가는 것 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 들 말입니다. 20년 전에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해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군의 철수로 정리 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 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폭압적 종교원리에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프 가니스탄 여성들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며 재등장한 탈레 반으로 인해 이들은 불안과 공포로 떨며 몸을 숨 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국익을 앞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권, 민 주주의 같은 이상적 가치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노골적인 국익우선을 내세 웠고 그 이후 등장한 바이든 대통령도 국익우선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뺐습니다. 아프가 니스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무책임한 권력자 들의 행태에 분노하면서도 세계인들은 미국의 이 번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며 미국의 ‘낙심’을 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이 말씀 은 에베소서에도 언급됩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 하되 낙심하지 말라”(엡 3:13) 이렇게 두 차례나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성 도들을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 울 스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 회를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했는지도 모릅 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실망, 포기를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도와 줬는데 ...”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낙심을 경 계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 속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내가 하지만 다른 사람 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

문의 말씀을 믿는다면 열매는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 라”(9절) 열매를 거둘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 다. 다만 우리는 주어진 선한 일을 묵묵히 할뿐입 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 시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습니 다. 그래도 주님은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한 일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묵묵히 선한 일 을 감당할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현관에 택배가 온 것을 보았 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오며 살펴보니 라 면 한 상자인데 발신인이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인 중에 한분께서 ‘오병이어 나눔’에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발신인 없는 라면 상자를 보며 가슴 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누어도 배고픈 사람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낙심하 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시는구나 생각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 을 하는 사람이 낙심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낙 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구역특

-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 입니까?
-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 중단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외울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담임목사 방송설교

- 동영상설교 <http://knprok.or.kr>
- 유튜브(Youtube) 백용석 목사
- 미국 시카고 기독교방송(KCBS)
매주 수 오후 12:30

※ 오늘 강남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예배후 2층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배]

- 주일예배, 수요, 금요치유기도회, 새벽기도회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참석은 130명 이내입니다.
※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1010-1214-4032 강남교회
- 말씀 낭독 : 7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말씀 낭독을 합니다.
※ 이번주간 낭독 : 사무엘하, 열왕기상
(수요일은 저녁 8시30분에 합니다. 금요일은 치유기도회입니다.)

[교 육]

- 교회학교 :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 온라인(Zoom)으로 진행합니다.
① 영아부·유치부 “와! 하나님이다” (에스겔 37:5) : 8월 15일(주일), 22일(주일)
② 유년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에스겔 37:5) : 8월 15일(주일), 22일(주일)
③ 초등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에스겔 37:5) : 8월 3~5주, 3주간 (7~8, 14~15, 21~22)
④ 중등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9:35) : 8월 15일(주일), 22일(주일)
⑤ 고등부 “주여! 이제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스가랴 10:1, 사도행전 3:19~21)
- 8월 15일(주일), 22일(주일), 29일(주일)
- 청년 말씀사경회 “청년이여 일어나라” : 8월 29일(주일) 오후 2시

[선 교]

- 마스크 나눔 : 지역주민 전도와 격려를 위해 마스크를 나눕니다. 참여하실 분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세요.
- 창조질서 보전 : 탄소중립 운동에 참여합니다.(주보 뒷면)
- 장학금 : 3부 예배시간

[교우소식]

- 이사 : 장기주 집사 (2105) 강서구 화곡동 인터시티빌라
- 별세 : 유병우 성도 (황미숙 성도 1407) 모친상
- 입원 : 김성순 권사 (1302) 스타병원
송춘례 권사 (1208) 서울 고든병원

[기 타]

- 코로나19 예방 : 마스크 착용, QR코드나 방문자 일지 작성, 거리두기, 손씻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안내 및 온라인 헌금]

- ※ 주일 주차안내 / 교회주차장 : 새가족, 장애우, 임산부, 걷기 어려운 교우 ※ RV와 승합차량은 KC대학 주차 KC대학 주차장 : 사무실에서 주차권을 받으세요.(2~6시간) ※ 주일예배시만 가능
- ※ 온라인 헌금 : 수협 1010-1214-4032 강남교회 (예/ 최OO 십일조, 황OO 감사, 김OO 선교)
금요일 기준 정산합니다.

※ 우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에서 봉사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